부처님 成道 의미는 '행복 나눔'

문화체험 · 자비나눔… 성도재일의 변화 눈길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재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이날을 기념하는 불교계 행사가 자비나눔과 문화체험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기도정진을 넘어 사회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보듬고, 또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자비나눔 활성화는 강북구사암연합회(회장 수암)가 11년간 지켜 온 원칙이다. 강북구에 위치한 사찰들이 개별 사찰 활동보다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활동은 성도재일 연합법회에서 잘 드러난다. 1월 4일 서울 도선사 호국참회원에서 열린 제8회 성도재일연합대법회에서는 철야정진 기도 입재 뿐만이 아니라 '자비의쌀' 전달 및 봉사단체 후원 등이 진행됐다. 성도재일을 앞두고 강북구 지역의 각 사찰 신도들은 십시일반 마음을 모은다. 350가구에 전달되는 쌀만 7000여 kg에 달한다. 강북구청에 전달 후 강북 13개 동사무소에 트럭으로 쌀을 배송하는 모습은 지역의 볼거리로 알려지기도 했다.

강북구사암련 회장 수암 스님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원력이 바로 자비실천"이라며 "지역사찰들이 합심해 활동하니 일반시민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강북구사암련의 합동합창단 공연(사진 위)과 자비의 쌀 전달(사진 왼쪽 아래)모습. 청림회의 문화예술제(사진 오른쪽 아래)

강북사암련, 자비의쌀 전달
대전청림회, 락밴드 공연 개최
조계사, 성철 스님 주제 특강

이밖에 이번 성도재일에는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강정규)가 1월 5일 성도재일 법회서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 돕기 자비실천 모금행사를 열었다.

대전비구니청림회(회장 효경, 이하 청림회)가 1986년부터 열고 있는 성도재일 문화예술제는 성도재일의 문화행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청림회는 1월 5일 대전 청림회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제를 봉행했다. 이번 예술제는 국민멘토 정목 스님이 사회자로 나섰으며, 테너 김승택, 락밴드 이밝음, 국악인 강경민, 청림회합창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였다. 예술제에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권선택 대전시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가 1월 3일 광주KT대강당에서 개최한 성도재일법회는 연화유치원생들의 부채춤과 사물공연이 진행돼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 뮤지컬 보현행원송을 성도재일에 선보인 평택 명법사(주지 순형)는 올해 공연과 함께 신행수기 발표도 함께 진행했다.

성도재일의 부처님 깨달음을 강연으로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서울 조계사의 경우 1월 4일 성철 스님의 상좌이자 백련불교문화재단 원택 스님을 초청해 성도재일 특강을 개최하기도 했다. 불자들은 스님의 강연을 듣고 참회문 쓰기와 촛불명상 등을 진행한 뒤 지혜의 등달기 등을 진행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철야정진 외에도 다양한 강연과 문화행사는 일반 대중들이 성도재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한편, 근현대 불교계는 성도재일을 맞아 다양한 문화공연 등을 진행했다. '동아일보' 등 당시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1926년 1월 26일 울산불교포교당이 성도절 기념 소년소녀단 가극공연과 제등행렬을 개최했으며, 1928년부터 서울 각황사(현재 조계사)에서 음악과 가극, 동요를 공연하고 빈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다고 전해진다. 노덕현 기자

복지 소식

조계종복지재단 신년 지원사업 '시동'

조계종복지재단이 신년을 맞아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비나눔에 시동을 걸었다. 복지관서 운영하는 각종 나눔활동 지원 대상자를 찾아나선 것.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KT&G복지재단과 함께 의료비와 수술비 지원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2인 이상 가구 가장 혹은 보호자(20세 이상 성인) 중 병명 제한 없이 치료비 · 수술비 · 재활치료비 · 보장구 구입이 필요한 사람은 1월 15일까지 온라인(www.ktngwelfare.org) 사연신청 접수하면 된다. (02)6007-1459

또한 조계종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2017 러브아이 눈 수술비 지원 캠페인'도 진행한다.

소외계층 자녀(영유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관심있는 사람은 1월 1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접수(wlwhs0306@nate.com)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제출서류는 홈페이지(http://www.kidsfuture.or.kr)서 확인 가능하다. (02)843-8479

이승희 기자

여주시노인福 어르신 위한 새 동아리 창립

교통안전지킴이, 걷기운동 회원 모집

여주시노인복지관이 신년부터 어르신 자립심과 건강유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뛰어든다.

여주시노인복지관(관장 이석자)은 올해부터 활동에 돌입하는 △교통안전지킴이 동아리 △걷기동아리 조직을 알리고, 활동원을 모집에 나섰다.

먼저 교통안전지킴이 동아리는 어르신 자립심을 키우고 지역사회 내 공헌도를 높이기 위한 동아리로, 만 6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뽑는다. 1월 20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고, 참여자는 2월 말~3월 중 안전한 보행 및 운전자세 습득 관련 교육을 받는다.

지킴이로 선정된 어르신들을 '실버 교통안전프로그램 진행자'로 양성할 계획이며, 교통안전지킴이들은 월 1회 지역 내 유치원 · 아동보호시설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올바른 걷기 운동 교육 중인 어르신들.

걷기동아리는 복지관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올해 처음 동아리형태로 조직됐다. 기존 산발적 · 단발성 행사서 벗어나 동아리 단위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1월 20일까지 인원모집하며 △올바른 걷기 운동 교육 △여주지역 경로당 순회 △주1회 걷기운동 및 관련 캠페인 등 진행한다. (031)881-0050

이승희 기자

'아름다운 동행' 탄자니아 NGO교육

1월 5일~2월 17일까지 교육 후 2월 28일 출국

아름다운동행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사무총장 윤현봉, 이하 KCOC) 후원으로 2월 28일 출국해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지역 무캄바 · 부말리아 초등학교서 1년 동안 활동할 NGO봉사단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첫 교육이 진행된 1월 5일엔 박찬정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아름다운동행 및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탄자니아 지부 업무 소개 및 봉사단원 역할 △아름다운동행 배분사업 △모금사업 △해외아동결연사업 등에 관해 전반적 소개를 마쳤다.

아름다운동행 선발 봉사단은 1월 9일~13일, 2월 6일~17일 진행되는 KCOC 교육에 합류해 최종 교육을 마칠 예정이다. 최종 교육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지구촌공생회 · 더프라미스 · 한울안운동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참여한다. 이승희 기자

국회 정각회 5일 신년법회 열어

12일 사찰음식 체험 등 결의도

국회 불자의원과 직원들의 모임인 정각회가 새해를 맞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1월 5일 국회의사당 정각선원에서 신년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에는 서울 상도선원 선원장 미산 스님이 법사로 나섰다. 미산 스님은 이날 "국회의원들이 국민행복을 위해 판단을 해야 한다. 더 깨어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각회 회원들은 법회에서 올해로 34주년을 맞은 만큼 정기법회 뿐만 아니라 대민봉사, 성지순례 등 적극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1월 12일 서울 진관사에서 사찰음식 체험행사를 갖고 2월 중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초청 신년법회를 열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우리 손으로"

조계사 구랍 31일 2차 금강경 복장식 봉행

새해를 앞둔 구랍 31일,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단상 위로 금강경이 높게 쌓였다. 주지 지현 스님이 단상과 그 주변에 팥과 청수를 뿌리자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은 동시에 법당 결계를 한 오색실을 잘랐다. 결계가 풀리자 금빛 장막에 덮여 있던 금강경 2333권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구랍 31일 총본산 성역화를 위한 '2차 삼존불 금강경 복장 불사'를 봉행했다. 지난 2015년 12월 봉행된 첫 번째 금강경 복장불사에는 3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2차 복장불사에는 2300여 명이 동참해 대웅전 중앙의 석가모니불에 681권, 오른쪽 약사여래불에 1344권, 왼쪽 아미타불에 308권 등 총 2333권을 만든 것이다.

결계 의식이 끝난 뒤 조계사 스님들이 금강경을 밖으로 이운하자 불자들은 이 금강경을 받아 각자 머리에 정대하고 대웅전 뒤 삼존불 복장 입구로 향했다.



조계사 신도들이 금강경을 정대하고 도량을 돌고 있다.

주지 지현 스님은 금강경을 정대하고 이운해온 신도들을 맞이하고, 작은 선물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금강경 복장불사를 위해 조계사 신도들은 10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금강경 기도를 열었다.

이날 지현 스님은 한 어린이가 용돈을 모아 금강경 복장 불사에 동참한 사연을 소개했다. 지현 스님은 "한 어린이가 일요법회마다 불전을 모아 100만원으로 금강경 한 권을 보시했다. 이런 꾸준한 동참만이 성역화 불사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사는 2017년 말에는 아미타경을 아미타불에 복장하는 3차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사는 100억원 모금을 위해 1만 불사 후원자를 모집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9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쵯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출강 및 통신 2017학년도 제26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 교육 신입생 모집

탁월한 불교교육과 명증한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은 정통한 법사교육으로 26년의 전통과 신뢰로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습니다.

①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인증하는 법사자격 법위증이 수여됩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 (1년) · 대법사과정 (2년) · 불학연구원과정 (5년) · 불교석학과정 (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7년 2월 23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